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3월 31일 보스톤 힐튼파크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취업 및 채용행사에서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관별 자리를 소개하고 연봉이나 인센티브까지 상담할 수 있는 1대1 상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 한국정부, 보스톤서 인재 유치... 연구·취업·창업 길 열어

과기정통부·KOTRA 등 공동 개최, 1대1 컨설팅과 창업 지원프로그램도  
 연구자·준경력직엔 실질 기회, 학부생에게 다소 제한적이라는 반응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과기정통부, KOTRA 등 정부 부처들이 3월 31일 보스톤 힐튼파크 플라자에서 글로벌 취업·채용 행사 '2026 Korea Awaits Your Brilliance' 를 열고, 미국에 있는 한인

및 미국 인재들을 상대로 한국행 연구, 취업 그리고 창업 기회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 현대, 포스코, LIG, 유한양행, ESOL, RIST, 루덴스, KAI 등 기업과 각 대학,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1

### 〈전체 기사 읽기〉

대1 커리어 컨설팅, 정책 설명, 창업 관련 패널 토론,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300여명이 사전 등록했으며 학부생부터 박사후과정, 연구원, 창업가까지 현장을 찾았다. 참가자의 절대적 다수가 한국인 학생 및 연구원들이었으나 일부 미국인들도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주최한 과기정통부 최미정 미리인재

정책과장은 보스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우수 인재가 한국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행사의 핵심 목적이 단순한 채용 설명회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실제 진입 경로를 한 자리에서 연결해 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스톤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포닥과 젊은 연구자, 청년 창업 인재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최 과장은 이번 행사의 배경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력 축소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해외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일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내 취업과 이민 환경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점도 해외 인재 유치 논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행사의 초점은 보다 실질적인 연결에 맞춰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의 행사가 정책 소개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기관별로 실제 자리를 소개하고 연봉이나 인센티브 조건까지 상담할 수 있는 1대1 컨설팅을 중시했다. 동시에 창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한 축으로 보고,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연구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10면으로 계속

## 첨단 장비로 집 지켜봐...아시안계 가정 노린 절도단 3명 체포

GPS 추적기·몰래카메라·와이파이 방해장비까지 동원  
 동아시아계와 인도계를 타겟, 집안 사람 동선까지 감시  
 검찰, 비슷한 범죄조직 여전히 활동 중일 가능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 동아시아계와 인도계 주민 가정을 상대로 첨단 장비를 통해 조직적인 주택 침입 범죄를 저질러온 일당 3명이 체포됐다.

미들섹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뉴욕 퀸

스 거주자인 데이비드 론돈-카스트로(26)와 에이손 라미레스-가르시아(25)는 지난해 여름 우편, 월빙턴, 벌링턴, 노스리딩 등지에서 발생한 5건의 주택 침입 사건과 관련해 주거 침입 공모 혐의로 26일 우편지방법원에서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펜실베이니아주 베들레헴 거주 이 탄 다미 벨트란(26)도 같은 공모 사건과 관련해 체포했으며, 이번 주 후반 우편 법원에서 기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리언 라이언 미들섹스 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범행이 여러 대의 차량과 전자장비, 은밀한 감시 수법이 동원된 첨단 조직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고, 주택 마당에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보안 시

### 〈전체 기사 읽기〉

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와이파이 방해장비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언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이들이 집 안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출입 시간과 동선을 집중적으로 감시했고, 피해자들이 집 안에 많은 현금과 보석, 가보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인종적·민족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로드아일랜드에서 올라와 웨이머스사와 톤턴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거점으로 삼아 범행 대상 ▶6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 사은회 성료

### 보스턴장로교회서 교사와 가족 150여 명 참석 편견 교육 · 이중언어 수업 · 교사 이미지 주제로 강연 이어져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한 2026년도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가 3월 28일 보스턴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변화하는 교사, 성장하는 학교” 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뉴햄프셔, 메인, 버몬트, 매사추세츠 등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교사와 가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수회는 이보람 교육간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남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각 학교에서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

에 참석한 교사들과 가족들을 환영했다. 남 회장은 또 김재휘 총영사의 축하 인사를 전한 보스턴 총영사관 지은석 교육영사와 행사 장소를 제공한 보스턴장로교회 장성철 목사와 교인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장성철 목사는 환영사에서 AI시대를 넘어서 ‘증강인간’ 이란 새로운 개념들이 현실화 되는 시기에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목사는 “AI를 통해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정보가 확장되고 있다면, 선생님의 역할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인격이 확장되고 삶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며 이번 연수회가 교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희 북미한국학교연합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연수회 주제가 모든 학교가 함께 고민하는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 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는 만큼 한국학교 교사들의 책임도 더 무거워지고 있다며, 다양한 수업자료와 디지털 도구를 익히고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오인식 협의회 이사장은 영상 격려사를 통해 2세 교육을 위해 힘쓰는 교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스턴 총영사관 지은석 교육영사는 김재휘 총영사의 축사를 대독하며, 교사연수회가 각 학교가 실질적인 교육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 지식을 나누는 자리로 자리잡아 왔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학교 우수교사 표창과 장기근속교사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 〈전체 기사 읽기〉

이번 연수회에서는 두 차례 강연도 이어졌다. 매사추세츠대 교육대학원 김민정 교수는 유아기부터 형성되는 편견이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차이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 2세들이 복합적인 문화와 언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만큼, 한글 교육은 단지 ‘문자교육’ 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항상 양쪽 문화를 함께 발달시킬 수 있도록 ‘수용언어 기반의 이중언어 스토리텔링 교육’ 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지대 김경호 교수는 교실에서 첫인상과 교사의 이미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교사의 태도와 무의식적인 행동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며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일까 찾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고 말하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또는 교실에서 상대방과 학생들이 가진 장점을 찾아 격려하고자 하는 노력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가 28일 합킨턴 소재 보스턴장로교회에서 교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가 끝나고 참석 교사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과 행동이 ‘교사 이미지 확립’ 에 큰 영향을 준다” 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이 열린 마음과 듣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체 강연 후에는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대표가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우스위 한국학교 서효순 신임 교장은 고 윤미랑 전임 교장의 암 투병 기간 동안 보내준 격려와 기도, 그리고 천국환송예배에 함께해 준 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전임 교장의 뜻을 이어 2세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단체사진 촬영 후 1층 친교실로 자리를 옮겨 열린 교사 사

은회에서 협의회가 마련한 저녁식사를 함께 나눴다. 각 학교 우수 배우자상 시상과 소감 발표가 이어졌고, 퀴즈와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된 뒤 행사가 마무리됐다.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 다음 전체 행사는 5월 2일 열리는 2026년도 글짓기·손글씨 대회이며, 장소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다. 이어 5월 23일에는 글짓기대회 시상식과 함께 어린이 사생대회 및 민속놀이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임원 단 및 이메일 KOSANE2025@gmail.com 또는 각 학교 교장 선생님께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중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 세계인이 부르는 한국 가곡, 보스턴서 다시... 한국 가곡 2026 콩쿠르 참가자 모집

###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

원기자= 지난해 보스턴에서 첫 선을 보이며 다양한 문화권의 젊은 성악가들의 노래를 통해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한국 가곡 콩쿠르가 올해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KCSB)가 주최하는 '2026 한국 가곡 콩쿠르 (Korean Art Song Competition)'는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신청 마감은 6월 1일이다. 본선 무대는 오는 8월 15일 보스턴 컨서버토리에서 공개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다.

이번 콩쿠르는 미국에 거주하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악가 중 한국어가 모국어 아닌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2000년 이전과 이후에 작곡된 한국 가곡을 각 1곡씩 골라 총 두 곡의 연주 영상을 준비해 예선에 지원하며, 최종 선발된 10명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한국 가곡은 시와 음악이 결합된 장르로, 한국어의 정서와 서정을 담고 있는 예술 형태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한국어 발음과 시적 해석, 문화적 이해를 함께 표현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K-pop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 가곡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미국 각지의 젊은 성악가들이 한국 가곡을 진정성 있게 소화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매우 뜻깊고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앞으로도 다시 참가하고 싶다" 고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다른 성악가들과 한국 가곡을 나누고 서로의 연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며 "내년도 반드시 다시 도전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주최 측은 "첫 대회는 기대 이상

의 반응을 얻었으며, 관객들로부터 매우 훌륭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어가 모국어 아닌 젊은 성악가들의 열정과 연주는 큰 감동을 주었다" 며 "올해는 더 많은 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층 성장하는 대회로 만들겠다" 고 밝혔다.

이번 콩쿠르는 한국 가곡의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차세대 성악가들에게 새로운 레퍼토리와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정보는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 대한항공 보스턴 신상옥 지점장 본사로, 김성식 신임 지점장 부임

신상옥 지점장 "보스턴 정말 좋은 기억, 한인들께 감사" 김성식 신임 지점장,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전체 기사 읽기〉

기자 = 신상옥 대한항공 보스턴 지점장이 3년여 만에 이임하고 김성식 지점장이 새로 부임한다. 신 지점장은 2023년 10월부터 2대 보스턴 지점장으로 근무해왔다.

본사로 승진하게 된 신 지점장은 보스턴 지점의 운영을 정상궤도에서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운영 초대 지점장의 시스템 안정화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상옥 지점장은 "보스턴 지역은 정말 좋은 기억이 많고 모든 고객 한분 한분이 최고의 고객이셨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꼭 보스턴에 다시 오고 싶다" 고 이임 인사를 전했다.

신상옥 지점장은 지난해 12월 수석 부장으로 승격했으며 보스

턴 발령 전 근무했던 한국 본사 정책 지원실의 실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지난달 도착해 윤 지점장과 인수계를 마무리한 김성식 신임 지점장은 3월 17일부터 대한항공 보스턴 지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성식 지점장은 2019년 애틀랜타 델타항공 본사에서 6개월간 파견근무를 한 이래 미국은 두 번째 근무이다. 지난 2022년에는 대한항공 싱가포르 공장에서 1년 6개월 근무했다.

김성식 지점장은 "그동안 잘 운영해오신 신 지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운항은 물론 서비스가 더욱 좋아지는 지점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부임 인사를 전했다.



# SMART DENTAL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SMART DETAL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프리미어 워크스, 시공부터 프로퍼티 관리까지 한번에 맡기는 통합서비스 강화

커머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레지덴셜 확장 본격화  
퍼밋 신청, 인스펙션 대응, 유지보수까지 원스톱 진행  
작은 수리부터 전체 리노베이션까지 “작은 일이란 없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건축 시공회사 프리미어 워크스(Premier Works)가 주거용 시장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서비스를 앞세워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프리미어 워크스는 벨링턴, 퀸지, 서머빌, 브루클라인, 메드포드 등 보스톤 인근 여러 지역의 대형 커머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시공 회사다.

프리미어 워크스를 이끄는 세 사람은 프로젝트 매니저 겸 프로퍼티 매니저 허준석, 현장 총괄 빈센트 박 부매니저, 윌태원 프로퍼티 부 매니저이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눠 상업용 시공, 주거용 리모델링 공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세 분야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프리미어 워크스는 부동산, 시공,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세 가지 사업 부문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부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까지 연계한 운영 구조가 다른 시공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허준석 매니저는 설명했다. 고객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시공팀이 필요한 보수·수리 작업을 하고, 투자 목적의 건물 또는 주택이라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세 부문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업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상업용 시공은 이미 탄탄한 실적을 쌓았다. 퀸지마트 내 푸드코트 시공을 비롯해 커피숍 리노베이션, 아이스크림 가게, 대형 매장 내부 공

사 등 다양한 상업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회사 설립 5년 만에 대형 커머셜 프로젝트를 여러 건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허준석 매니저는 강조했다. 작업요청을 받으면 고객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직접 밟는다. 타운승인, 협업 건축사를 통한 도면 작업, 인스펙션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공사 중간에는 플래닝, 전기 등 중간 인스펙션을 거쳐야 하는데, 인스펙터와의 소통도 프리미어 워크스가 직접 맡는다.

주거용 공사의 경우에도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허 디렉터는 먼저 현장을 방문해 작업 범위를 정하고, 고객과 소통을 거쳐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확정된 뒤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는 최종 마감과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며, 가능한 한 깔끔한 결과물을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허 매니저는 “보통 고객에게 말씀드린 날짜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혹시 지연되는 경우는 타운 쪽 승인이 늦어지거나 자재 배송이 밀리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어 워크스가 지금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분야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늘고 있지만, 직접

〈전체 기사 읽기〉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예상보다 크다. 세입자 전화 한 통에 현장까지 나갔다 오면 두세 시간이 걸리고, 직접 업자를 불러 수리를 맡기면 거품이 붙는 경우가 많다.

프리미어 워크스는 시공팀이 이미 있기 때문에 플러머, 전기 기사 등이 회사내 팀으로 준비돼 있어 각종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따라서 긴급 상황 대응은 프리미어 워크스가 자부하는 부분이다. 연중 무휴로 문제가 터지면 바로 출동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실제로 관리 중인 콘도에서 하수 배관이 터졌을 때 팀원 두 명이 즉시 해결하고 빈센트 박 부 매니저가 현장에 나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보통 1~2시간 이내이며 대부분의 현장 방문은 당일 내로 이뤄진다. 겨울철 보일러 등 난방 문제처럼 수리 업체 스케줄 잡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늦어도 48시간 내에 출동한다고 했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소개했다. 시즌마다 관리 중인 현장에 직접 나가 외부와 내부를 점검하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장 수리할 것과 향후 필요한 부분을 미리 짚어 알려준다. 세입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까지 포함해 처리한다.

매니지먼트비용은 콘도나 아파트의 경우 베드룸 수에 따라 산정하고, 싱글 패밀리 하우스나 멀티플렉스는 현장 어세스먼트를 거쳐 별도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들은 렌트비의 5-



프리미어워크스를 이끄는 3인방. 좌로부터 윌태원 부매니저, 프로퍼티 및 프로젝트 허준석 매니저, 현장 총괄 빈센트 박 부매니저

15%를 부과하지만 프리미어 워크스는 5% 내외를 부과하며 비용은 전액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리미어 워크스는 현재 약 100여 프로퍼티를 관리 중이다.

레지덴셜 시공 분야로의 확장도 본격화하고 있다. 보스톤 지역의 오래된 주택들은 수리와 리모델링 수요가 꾸준하지만, 대형 커머셜 프로젝트를 주로 해온 업체에 작은 일도 맡길 수 있을까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 프리미어 워크스 측은 “작은 일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페인트 작업, 마룻바닥 교체, 변기 수리 같은 간단한 것부터 집 내부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대규모 개축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집을 매매하기 전 내·외관을 정비하는 작업 — 창문 주위 목재 교체, 깨진 벽돌 보수, 스톤 작업 등도 맡아왔다.

최근 매사추세츠주에서 시행된 ADU(Accessory Dwelling Unit·주거형 부속공간, 별채)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허 매니저는 기존 주택 옆 확장 공사나 차고 위에 공간을 올리는 작업 등 ADU와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독립적으로 짓든 부착형으로 짓든 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프리미어 워크스 측은 “간단한 공사를 제외하고 타운이나 시에서 퍼밋을 받고 제대로 된 건축사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기록상 화장실 2개인 집에 지하실에 하나를 더 만들 경우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매매할 때 허가없이 진행한 불법개조는 서류상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어 워크스 연락처는 전화 617-642-3156 또는 이메일 admin@bostonpworks.com 로 문의할 수 있다.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올여름 커뮤니티레일 금요일 무료... 월 정기권도 50% 할인

### 6월부터 8월까지 정기권 할인... 최대 639달러 절약 월드컵 보스턴 스타디움행 경기 당일 14편 열차 운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가 올 여름 MBTA 커뮤니티레일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요일에는 무료로 운행하며, 월 정기권(Monthly Pass)을 50% 할인하는 등 대규모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3월 31일 보스턴 노스스테이션에서 킴 드리스콜 부지사, 필 잉 MBTA 총괄 책임자와 함께 여름철 커뮤니티레일 할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모두 4가지 프로모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여름철 모든 금요일 커뮤니티레일 무료 운행이다. 이에 따라 6월과 7월, 8월의 모든 금요일에는 커뮤니티레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쥘틴스와 7월 3일도 포함된다. 다만 보스턴 스타디움(질레트 구장) 열차, 케이프플라이어, 팍스보로행 특별 이벤트 열차에는

일반 요금이 적용된다. 월 정기권 할인 폭도 크다.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커뮤니티레일 월 정기권은 50% 할인 판매된다. 할인 대상은 일반 및 할인 정기권 모두이며, 1존에서 10존, 인터존 1존에서 10존, 통근 페리 정기권도 포함된다. 다만 1A존 정기권은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월 정기권 이용자들이 노선에 따라 여름 동안 321달러에서 639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 이용 혜택도 확대된다. 월 정기권 소지자는 주말 동안 자신이 가진 구간을 넘어 모든 존에서 커뮤니티레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존부터 10존 정기권 소지자는 주말에 10존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인터존 정기권 소지자도 인터존 10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혜택은 1A존 정기권과 페리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체 기사 읽기〉

또한 월 정기권 이용자는 주말 커뮤니티레일 여행 때 동반 1명을 하루 1달러에 데려갈 수 있다. 이른바 ‘여름동반자 요금’으로, 정기권 1장당 동반자 1명에게만 적용된다. 이 역시 스타디움 열차와 케이프플라이어, 팍스보로행 특별 열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힐리 주지사는 “정기적으로 통근하는 주민들뿐 아니라 지역 상점과 식당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올여름 다양한 특별 행사를 즐기려는 모두에게 대중교통을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들고 싶다”며 “사람들이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레일 요금을 할인하고 여름 내내 금요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올여름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대형 행사가 잇따르면서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월드컵, 매사추세츠 건국 250주년 행사, 톨십스 행사 등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동차 대신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MBTA는 특히 2026년 FIFA 월드컵 기간인 6월과 7월에는 커뮤니티레일 운행 시간표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일마다 보스턴 스타디움까지 최대 2편을 수송할 수 있도록 14편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런 일정 조정이 기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번 할인 정책이 그 영향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모집

2천~3천달러 장학금, 5월 20일 신청마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원덕수)가 뉴잉글랜드 지역의 학생들 대상으로 2026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장학생 선발 대상은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

1.5세, 2세, 입양자로서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학생들이어야 한다.

서울대 동창회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학업과 미래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및 멘토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2쪽 이내의 에세이 그리고 성적표까지 모든 구비 서류를 온라인(onlin)으로 마감일 5월 2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전체 기사 읽기〉

신청서는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www.snuaane.org](http://www.snuaan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2,000에서 \$3,000 사이로, 특히 이 장학금을 독창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진 지원자에게 우선 고려한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snuaane.org](http://www.snuaane.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snuaane.future@gmail.com](mailto:snuaane.future@gmail.com)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모집

## 내일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찾습니다

선발대상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및 입양자로서 학업성과 리더십이 출중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 학생  
\*뉴잉글랜드 거주자

장학금액 \$2000-3000  
지원방법 온라인 제출 (신청 양식: [www.snuaane.org](http://www.snuaane.org))  
마감일자 5월20일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nuaane.org](http://www.snuaane.org)

## 보스톤코리아 뉴스

###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mailto: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mailto: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AI 일자리 불안 속 2월 채용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

## 2월 신규 채용 4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40만명 가까이 감소 테크업계 감원과 AI 대체 우려가 고용시장 압박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2월 채용 규모가 거의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스턴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3월 31일 2월 신규 채용 인원이 48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거의 40만명 적은 수치다. 팬데믹 봉쇄가 한창이던 2020년 4월을 제외하면, 월간 채용 규모로는 2014년 이후 가장 낮다.

이번 채용 둔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 이전에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은 당시보다 더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매슈 마틴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 데이터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전 수치”라며 “가계 지출 약화와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채용 의지에 영향을 주고, 채용 회복도 늦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테크업계의 대규모 감원과 AI 확산이 고용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존과 메타는 올해 수천 명을 해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세일즈포스도 지난해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일부는 AI 도입으로 해고된 인력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AI가 소프트웨어 작성 능력까지 빠르게 보여주면서, 초급 프로그래머 일자리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실업률은 4.4%로 여전히 경기침체 때 흔히 나타나는 수준보다는 낮

### 〈전체 기사 읽기〉

지만, 채용 감소와 유명 기업들의 감원, AI 관련 암울한 전망이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달 앤드루 양 전 대선 후보는 AI가 올해 수백만 개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고,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초급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테크업계 해고는 특히 두드러졌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전체 경제의 해고 규모는 170만명으로 1월보다 소폭 늘었지만, 1년 전보다는 8% 줄었다. 반면 테크업계 해고자는 6만7천명으로 1월보다 34%,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급증했다.

이처럼 채용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체감경기도 크게 악화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은 3월 31일 발표한 조사에서 “지금 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때”라고 답한 근로자가 2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중반의 70%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다. 특히 대졸자의 불안이 더 컸다.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낙관한 대졸자는 19%에 불과했고, 이는 대학 학위가 없는 근로자의 35%보다 낮았다. AI가 화이트칼라 직종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가장 큰 타격은 사회에 막 진출하는 청년층과 대졸 초급 인력에 집중되고 있다. 리벨리오랩스는 3월 31일 보고서에서 초급 인력들이 새 직장을 찾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의 자넬레 무니크와 이코노미스트는 “초급 인력은 옮겨갈 기회가 더 적고 진입 장벽

은 더 높아졌으며, 기업들은 점점 더 경력직 채용에 집중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았지만, 몇 년 전보다 훨씬 덜 역동적이고 덜 관대한 시장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치는 미국 노동시장이 겉으로는 버티고 있어도 내부에서는

점점 활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실제 채용 축소와 일자리 재편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용시장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hsb@bostonkorea.com

## 첨단 장비로 집 지켜봐...아시안계 가정 노린 절도단 3명 체포

### ▶▶1면에 이어서

을 몰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숙소에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추적기를 설치하며 침입할 집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언 검사장은 “이것은 마치 하나의 직업처럼 운영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수십만 달러의 현금과 대량의 보석,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족 가보까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난품은 회수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각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수상한 차량을 추적하고, 차량 번호판 기록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해 용의자들의 동선과 활동 패턴을 파악했다.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실시간 위치 추적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 결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외곽의 한 단기 임대 숙소로 연결됐다.

검찰은 해당 숙소를 수색한 결과 용의자들과 함께 다수의 감시 카메라, 배터리 팩, 와이파이 장비 등을 발견했으며, 이 장비들이 매사추세츠 주택 침입 사건에 사용된 장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라이언 검사장 사무실은 지난해에도 인도계 또는 남아시아계 주민들을 노린 연쇄 절도 사건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3명은 수십건의 주택 침입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라이언 검사장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죄 조직이 여전히 활동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피해 지역사회가 입을 충격은 단순히 도난당한 재산 가치 이상”이라며 “지역사회에 공포를 퍼뜨리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턴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부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우스터 한인 연합 감리 교회가  
예배 장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새 예배당 주소 :**  
64 Salisbury St,  
Worcester, MA 01609

예배 시간 : 주일 오후 2:30  
친교 시간 : 주일 오후 3:30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Worcester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64 Salisbury St, Worcester, MA 01609  
Tel: 508.799.4488 Email: office@workmc.org  
http://workmc.org



# 그레이터보스턴 2월 주택시장 침체 ... 거래도, 가격도, 매물도 줄어

## 2월 단독주택 판매 9.1% 감소... 높은 모기지 금리와 매물 부족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정명술 기자 = 폭설이 강타한 2월 그레이터보스턴 주택시장은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고, 가격과 매물도 함께 주는 침체 현상을 보였다.

그레이터보스턴부동산중개업협회(GBAR)가 3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협회가 집계하는 67개 시와 타운에서 판매된 단독주택은 388채로 지난해 2월의 427채보다 9.1%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최근 수년간 부진했던 시장이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침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역시 최근 들어 가장 거래가 부진했던 해 가운데 하나로 꼽혔지만, 올해 초에 폭설 등 늦은 날씨로 지난해보다 부진한 시장상황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가장 큰 문제로 매물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집을 팔려는 기존 주택 소유주가 많지 않아 시장에 나오는 집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매물이 적을수록 경쟁은 심해지고, 집을 사지 못한 수요가 임대시장에 남으면서 렌트비에도 추가 압박을 줄 수 있어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

구매자 입장에서 다소 희소식도 있다. 2월 그레이터보스턴 지역 단독주택 중간가격이 85만2천500달러로, 1년 전 88만8천달러보다 4% 내려갔다. 다만 주전역의 단독 주택 가격은 2.6% 소폭 올랐다.

시장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금리가 꼽힌다.

〈전체 기사 읽기〉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3월 한때 2022년 이후 처음으로 6%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후 전쟁과 유가 상승의 여파로 다시 상승해 지난주 6.38%까지 올랐다. 다만 이번 3월 금리 급등의 영향은 아직 2월 거래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높은 금리는 그레이터 보스턴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집값 자체가 높은 데다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상환액까지 커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존 주택 소유주들도 집을 내놓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집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는 지금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신규 매물과 전체 재고 감소로도 이어졌다. 지난 2월 광역보스턴의 신규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줄었고, 시장에 나와 있는 전체 매물은 13.8% 감소했다.

매사추세츠 전역 상황도 비슷했다. 부동산 분석 업체 워런그룹에 따르면 주 전체 단독주택 판매는 2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감소했다. 캐시디 노턴 워런그룹 부발행인은 여기에 금리 환경, 관세 우려, 매물 부족뿐 아니라 잇따른 눈폭풍과 영하권 체감 온도, 장기간 정전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ditor@bostonkorea.com

# 보스턴커먼에 10만여명...〈노 킹스〉시위 매사추세츠 전역서 열려

## 트럼프 행정부 규탄 집회 주내 169곳서 열려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전체 기사 읽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를 규탄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28일 매사추세츠 전역 169곳에서 열렸으며, 보스턴커먼 집회에는 보스턴글로벌 추산 10만 명이 상이 운집했다.

보스턴커먼 집회에는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 안드레아 조이 캠퐸 법무장관, 에드 마키 연방상원의원, 어야나 프레슬리 연방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밴드 드롭킥 머피도 공연에 나서며 집회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보스턴경찰은 이날 저녁까지 체포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6월 처음 시작된 '노 킹스' 시위의 세 번째 대규모 집회다.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이름으로 시위가 열렸으며, 이번에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을 다시 결집하는 성격을 띠었다.

참가자들은 이민 단속, 전쟁, 민주주의 훼손 우려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스턴으로 이주한 24세 미하카 고게이트는 보스턴글로벌에 "지금은 너무 무서운 시기"라며 "이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퀸시 주민 도나 캐닝햄도 "매일같이 지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집회는 우리가 혼자야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반면 대규모 시위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왔다. 워터타운의 한 참가자는

2017년 여성행진 이후 오랜만에 대규모 시위에 나왔지만 "그때는 고무적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 로웰대 정치학자 존 클루베리어스는 대규모 집회가 반대 세력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인을 주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반대 여론이 실재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스턴글로벌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 조사에서는 트럼프의 순지지율이 마이너스 18%포인트를 기록했고, 뉴햄프셔대 조사에서는 매사추세츠 주민의 72%가 트럼프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리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학교와 데이케어센터, 병원, 법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정부 소유 부지에서도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곳에 구금시설을 세우는 일은 매사추세츠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고등교육 압박, 복지 안전망 축소, 연구비 삭감 등에 대한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누적된 반발이 거리로 표출된 사례로 해석된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피로감이 컸지만, 동시에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hsb@bostonkorea.com

###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보스턴 새소망 글로벌감리교회

BOSTON NEW HOPE GLOBAL METHODIST CHURCH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주일 예배 : 오후 2:30  
장소 :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6시 (ZOOM)  
수요성경공부 : 오후 8시 (ZOOM)  
지역선교 : 행복 시니어 학교 매월 넷째 주  
(문의 : 김지영 권사. 603.674.3415)

진남조 목사 : 201.667.9777  
namjojin@gmail.com

www.bnhkgmc.org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 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손에...미국 여론은 찬성쪽 우세

### 합법 이민자 자녀 시민권에는 폭넓은 지지 불법체류 부모 자녀 문제로 가면 여론 크게 갈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대법원이 4월 1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를 두고 구두변론을 연다.

판결까지는 수개월의 변론 및 심의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헌법에 따라 허용되어 온 제도의 행방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NPR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여론은 출생시민권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부모의 체류 신분이 쟁점이 되는 순간 의견이 크게 갈린다. 부모가 미국 출생자이거나 합법적으로 이민 온 경우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강한 지지가 나타난다. 그러나 부모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에는 자동 시민권 부여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나뉜다.

출생시민권은 미국에서 1868년 수정헌법 14조에 포함되면서 제도적으로 자리잡았다. 수정헌법 14조 1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불법 입국자 문제를 겨냥해, 수정헌법 14조 조항이 현재의 이민 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식 출생시민권은 결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다. 자동 출생시민권, 이른바 속지주의는 전 세계 약 30여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서반구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은 이 제도를 이미 폐지했고, 아일랜드도 2005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없앴다. 반면 많은 국가는 부모 혈통이나 가계에 따라 시민권을 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다. 한국은 대표적 속인주의다.

여론조사 결과는 질문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묻거나, 이 권리가 헌법에 담겨 있다는 점을 함께

#### <전체 기사 읽기>

설명하면 찬성 비율이 높아진다. 반대로 불법체류 부모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줘야 한다는 방식으로 질문하면 지지율은 크게 떨어진다.

조사별로 수치도 엇갈린다. 공공종교연구소 조사에서는 부모의 시민권 상태와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3분의 2에 달했다. 또 다수 대학과 함께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59%가 제도 유지를 지지했다.

NPR과 입소스 조사에서는 출생시민권을 끝내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53%였고, 찬성은 28%에 그쳤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민 온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에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찬성했다. 그러나 부모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가 50% 대 49%로 거의 같았다. 유고브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과반이 출생시민권에 찬성했지만,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데 찬성한 비율은 31%에 머물렀다. 관광객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는 데 찬성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정당과 인종, 연령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다. 민주당 지지층과 라틴계, 흑인, 젊은 층에서는 출생시민권 지지



가 높게 나타난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 특히 백인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우세하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불법체류 부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데 민주당원의 약 4분의 3이 찬성한 반면, 공화당원은 약 4분의 1만 찬성했다.

같은 공화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백인 공화당원 중 찬성 비율은 18%에 그쳤지만, 히스패닉계 공화당원은 55%가 찬성했다. 인종별로는 라틴계의 75%, 흑인의 61%가 불법체류 부모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에 찬성했지만, 아시아계는 48%, 백인은 42%에 그쳤다.

연령별로도 세대 차가 확인됐다. 50

세 미만은 불법체류 부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줘야 한다는 데 58% 대 41%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50세 이상은 거의 10명 중 6명이 반대했다. 또 미국 이민 2세대는 찬성이 강한 반면, 3세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어떤 매체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서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공공종교연구소 조사에서는 신문이나 주류 TV 뉴스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는 출생시민권에 찬성했다. 반면 폭스뉴스를 가장 신뢰하는 응답자 가운데 찬성 비율은 41%에 그쳤고, 더 보수적인 매체를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29%까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

# 트럼프 행정부, 401(k)에 사모펀드·가상화폐 길 열어

미 노동부 새 규정 추진... 고수의 기대론과 함께 수수료·불투명성·손실 우려도 확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인 은퇴 계좌인 401(k)에 가상화폐와 사모펀드 같은 위험도가 높은 대체자산을 담기 쉽게 하는 새 규정을 내놨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3월 30일 사모펀드, 사모대출, 부동산, 가상화폐 등 대체자산을 401(k) 투자 상품에 편입하기 쉽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노동부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번 규정이 401(k) 플랜 운영자들이 대체자산을 투자 라인업에 넣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탁자 책임과 소송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사모자산에만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가상화폐까지 401(k)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힌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규정을 사모펀드와 함께 가상화폐를 401(k)에 담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치로 보도했다. 다만 노동부의 제안이 곧바로 모든 401(k)에 가상화폐를 편입토록 한다는 것이 아니다. 플랜 운영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향후 법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401(k)를 운영하는 고용주와 관리자들이 성과,

수수료, 복잡성, 유동성 등을 포함한 6가지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평가하면,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상 요구되는 신중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절차 기반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있다.

노동부는 어떤 자산군이 더 낫거나 더 위험하다고 정부가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 가상화폐든 사모펀드든 정부가 직접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면 401(k) 안에 넣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더 분명히 해주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번 조치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노동부의 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22년에는 401(k)에 가상화폐를 넣을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2025년 5월 그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당시 노동부는 "극도의 주의"라는 기준이 ERISA에 없는 표현이며,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중립적 접근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대체자산 전반에 대한 중립적이고 절차 중심의 틀을 제시한 셈이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변화가 은퇴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고 분산투자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

**〈전체 기사 읽기〉**

히 비상장 시장이 커지고 상장기업 수가 장기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들도 사모시장과 디지털 자산에 일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로이터는 월가가 오랫동안 401(k) 시장 진입을 원해왔고, 이번 제안이 그런 흐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가상화폐와 사모자산이 일반 직장인의 은퇴자금에 너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사모펀드나 사모대출은 자산 가치와 위험을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수수료도 높은 편이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사모대출 시장의 불안 신호와 사모펀드의 불투명성, 긴 투자 기간, 높은 비용 문제를 짚었고, 워싱턴포스트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을 인용해 노동자들의 은퇴자산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의견수렴은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뉴욕타임스는 노동부가 연말까지 최종 규정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 확정 시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시장 적용까지는 사업주와 플랜 운영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블랙스톤, 63억달러 규모 생명과학 펀드 조성 완료

케임브리지 기반 생명과학 조직 주도...매사추세츠 기업 투자도 확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이 총 63억달러 규모의 신규 생명과학 펀드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는 블랙스톤이 지금까지 조성한 생명과학 펀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보스턴비즈니스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2020년 발표한 이전 펀드 46억달러보다 약 40% 커졌다. 새 펀드 명칭은 '블랙스톤 라이프사이언스 VI'다.

블랙스톤의 생명과학 부문은 케임브리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니컬러스 갈라카토스가 이끌고 있다. 갈라카토스는 2005년 설립된 클래러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매니징디렉터 출신이다.

블랙스톤은 2018년 생명과학 부문을 출범시킨 뒤 제약, 바이오테크, 의료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해 왔다. 특히 잘 알려진 기업들의 개발 후기 단계 제품에 자금을 투입하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1년 동안 블랙스톤의 주요 거래 가운데는 매사추세츠 기업과 관련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블랙스톤은 앨나일럼 파마슈티

**〈전체 기사 읽기〉**

컬스와 2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자금 조달 계약을 맺고 RNA 간섭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최근 거래로는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엔토스테라퓨틱스를 노바티스가 최대 31억달러에 인수한 사례가 있다. 엔토스는 2019년 블랙스톤 라이프사이언스와 노바티스가 공동 설립한 회사로, 후기 개발 단계의 항응고제 후보물질에 대한 전 세계 독점 권리를 바탕으로 출범했다.

블랙스톤 라이프사이언스는 2024년에도 케임브리지 기반 모더나의 플루 프로그램에 최대 7억5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블랙스톤 측은 지난 1년 동안 신규투자 약정 규모만 약 2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갈라카토스 블랙스톤 라이프사이언스 글로벌 대표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 의약품과 의료가 34건의 규제 승인을 이끌어냈다"며 "이 같은 실적은 중요한 제품을 전 세계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업계 개척자들과 성공적으로 협력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USS 매사추세츠 취역...사우스보스턴서 수천명 축하

미 해군 최신 핵추진 잠수함 공식 취역  
매사추세츠 이름 단 다섯 번째 미 군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해군의 최신 핵추진 잠수함 USS 매사추세츠가 28일 사우스보스턴 콘리 터미널(Conely Terminal)에서 공식 취역했다.

보스톤글로벌 보도에 따르면, 이날 취역식에는 수천 명의 관중이 모여 새 잠수함의 출항을 축하했다. 특히 미국 해군의 가장 오래된 현역 군함인 USS 컨스티튜션이 함께 자리해, 미국 해군의 전통과 새 시대가 맞닿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에 취역, 실전 운용을 시작한 USS 매사추세츠는 매사추세츠 주의 이름을 단 다섯 번째 미 군함이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 행사에서 "이 여정이 매사추세츠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다"고 말하

며, 주의 독립전쟁과 해군 전통을 강조했다.

USS 매사추세츠는 버지니아급 고속공격 잠수함으로, 2023년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에서 명명식(christened)을 치렀고 2024년 2월 진수(Launched)됐다. 이후 각종 해상 시험을 거쳐 이날 공식적으로 해군에 편입했다.

이 잠수함은 길이 377피트 규모로, 장교와 승조원 152명이 탑승한다. 선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로로 움직이며, 어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속도는 25노트 이상이며, 800피트 보다 깊은 수심까지 잠항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에는 제복을 입은 수백 명의 현역 해군 장병과 가족,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였다. 일부 가족

**〈전체 기사 읽기〉**

은 전국 각지에서 보스톤을 찾았으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취역식을 지켜봤다.

승조원인 22세 음과탐지 기술자 야나 바라자는 "오랜 과정이었다"며 "내가 익숙한 곳보다 조금 더 좁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스 몰턴 연방하원의원도 참석해 "매사추세츠는 미국 독립혁명에 목소리를 준 곳"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 참전 해군 출신인 토머스 켈리 등 명예훈장 수훈자 3명도 함께 자리했다.

USS 매사추세츠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전함 USS 매사추세츠 이후 처음으로 이 이름을 다시 사용한 미 군함이다. 당시 전함은 퀴시의 포어리버 조선소에서 건조됐으며, 1947년 퇴역한 뒤 현재는 플라버에서 박물관으로 보존



되고 있다. 취역식(Commissioning Ceremony)이란, 군함이나 잠수함이 건조 후 진수되어 시험 운항을 모두

마치고 해군의 정식 전력으로 편입되어 실제 임무에 들어가는 공식 행사다. hsb@bostonkorea.com

# 한국정부, 보스턴서 인재 유치 나서... 연구·취업·창업 길 열어

▶▶1면에 이어서

MIT 소속 연구원 벤자민 사바티니(Benjamin Sabathini)는 한국 연구 기관에 최근 교수직을 얻은 동료의 소개로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연구 기관과의 협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행사에 왔다는 그는 "MIT에서 많은 국제 연구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장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선 공동 연구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에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솔직하게 지적했다. "학부생이면 답변을 잘 안 해주고, 포닥이면 어느 정도 들어주고, 교수여야 제대로 응답하는 위계 구조가 있다"며 "이번 행사가 실제로 한국 기관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라고 했다

국제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공자라고 밝힌 제러미 데이(Jeremy Day)는 자신의 전공이 이번 행사와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않지만, 한국에서 살아보고 한국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한국 직장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포스코와 루텐스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세일즈와 마케팅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한국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도 있었다. 보스턴 바이오메

디컬 분야에서 물리와 모델링을 연구하고 있는 정대한씨는 "AI 기반 단백질 설계와 바이오센서 관련 모델링 연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국 취업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이번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산업 분야 취업에 더 관심이 있고, 아내는 학교나 연구기관 쪽 진출을 더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학부생이나 초기 단계 참가자들에게는 다소 한계도 드러났다. 바이오와 연구개발 분야를 알아보려 왔다는 학부생 배형진씨(약학)는 부스와 상담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나 파인테크 쪽에 더 맞춰져 있는 느낌이 었다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한양행 쪽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주최 측도 이에 대해 이번 행사에 나온 기관 다수가 포닥이나 준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학부생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학부생은 공개채용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대 1 컨설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룸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해 한국에서 창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패널 토크쇼도 열렸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5명의 패널들은 한국과 미국의 창업 환경, 정부 지원 제도, 초기 창업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놓고 경험을 공유했다.

패널들은 AI 시대가 창업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진단했다. "이제는 한두 명 규모의 팀도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다만 초기에 시장 적합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투자나 지원금에 기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패널 중 한 명인 의료기기 분야 창업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돌아와 창업한 사례를 소개했다.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의공학 분야에 진출한 그는 "내가 만든 것이 실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며 6년 전 임상 의사와 함께 창업을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그는 미국 국적이라도 '우수인재 국적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패널은 한국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리팁스, 틱스, 덤테크 틱스, 스케일업, 글로벌 틱스 등 단계별 정부 지원 체계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한국에서 창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랜트만으로 20억~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저금리 정책 대출까지 합하면 30~40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사업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는 "미국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펀드와 투자 접근성"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를 키우고 싶다면 처음에 좋은 투자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행사는 만찬과 네트워킹 순서로 이어졌다. 김성규 과학기술자문회의지

원 단장이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해외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재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절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스턴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도 행사에 참여해 축사를 전하며, 이번 행사를 "보스턴 인재를 향한 한국 정부의 프로프즈"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KOTRA가 공동 주관했다.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무료 전세버스도 운행됐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는 한 해외 한인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한 유치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모집

## 내일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찾습니다

**선발대상**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및 입양자로서 학업성적과 리더십이 출중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 학생  
\*뉴잉글랜드 거주자

**장학금액** \$2000-3000  
**지원방법** 온라인 제출 (신청 양식: [www.snuane.org](http://www.snuane.org))  
**마감일자** 5월20일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nuane.org](http://www.snuane.org)

##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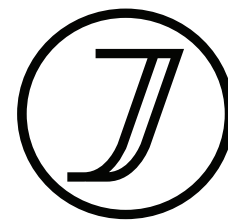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http://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트럼프 "목표완수 임박...향후 2~3주 극도로 강하게 이란 타격"

## 개전 33일차에 첫 생방송 대국민 연설... "이란과 논의 계속되고 있어" "합의 안되면 이란 발전소·석유시설 타격"... "석기시대 만들것" 위협도



대국민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전 33일차인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까지 이룬 진전 덕분에 오늘 밤 나는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을 그들이

속해 있던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향후 2~3주'에 걸쳐 전쟁이 더 지속될 경우 그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기간으로 몇차례 언급해온 '총 4~6주'를 다소 넘어서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핵심 전략적 목표들이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밝힌다"면서도 "나는 작전 개시 초기부터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분명히 해왔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사이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임을 밝힌 뒤 새로운 지도부가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라면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장 쉬운 목표물임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석유(시설)를 때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생존이나 재건의 작은 기회조차 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공격한다면 그곳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그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해 국제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 이 해협을 통한 중동 산 원유 및 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우리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들이 절실히 의존하는 석유를 보호하는 일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들 국가에 제안할 것이 있다면서 "첫째,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라"며 "둘째, 뒤늦은 용기를 내라.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석유)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 이란은 사실상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결국 이란과의 종전 관련 협상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전략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분쟁이 끝나면 해협은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이라며 "석유 공급이 재개되면 유가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주가는 급격히 오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대략 18분여 이어졌다.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15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한 군사작전 개시 직후 미리 녹화한 소셜미디어 영상으로 공격 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는 '종전 선언'이나 종전까지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같은 새로운 발표는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뉴욕증시가 요동치는 등 미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전쟁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전쟁의 정당성과 성과 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그들은 전혀 없는 핵폭탄, 핵무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 했고,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선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생산하려고 했고, 사거리가 가장 긴 미사일을 만들었으며, 아무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았던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제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미국이 개입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를 상대로 32일 동안 이토록 강력하고 훌륭한 군사 작전을 수행해왔으며, 그 나라는 내부가 제거돼서 사실상 더는 위협이 아니다"라며 "이는 여러분의 아이와 손주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min22@yna.co.kr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종전 기대 갠 트럼프 연설... "당분간 약세장 나타날 수도"

### 트럼프 "2~3주간 이란 강력 타격"...강경 발언에 국내 증시 급락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 대국민 연설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오자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3주'는 최근 그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을 수행해온 미군의 철수 시점으로 거론해온 기간으로, 이 기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실제 연설에서는 종전이 아닌 '이란 강경 타격'이 언급된 것이다.

이처럼 기대와 달랐던 연설 내용에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연설 도중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장 초반 5,574.62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5,234.05에서 거래를 마쳤다.

오후 들어 하락 폭이 커지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실망 매물이 출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약세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

미국과 이란 지도자 종전 가능성 언급에 간밤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와 반도체 기업은 강세를 나타냈다"며 "그러나 오히려 전쟁 지속 가능성을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종전 메시지를 기대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도 1,520 원대로 올랐다"면서 "종전 전망이 열리지 않으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미래에셋증권[006800] 서상영 연구원은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이 한 달째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3주 내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시장은 종전 기대 약화로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증권사 김석환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석기시대' 발언도 언급하면서 "전날 기대가 만든 안도 랠리가 실망에 따른 투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이) 확보될 때 우리는 (휴전 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썼다. 또 "그때까

지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며 "말하자면 그들은 석기 시대로 되돌려지고 있다"고 적었다.

김 연구원은 "의미 있는 변화를 예상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기존 인터뷰, 트루스소셜에 박힌 내용의 '재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란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각국의 안보 증강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핵심 소재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에너지도 중동 에너지 대체 수요가 몰리며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대신증권[003540] 이경민 연구원은 "이날 연설을 시장은 대이란 강경 기조와 전쟁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인식했다"며 "불확실성으로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됐다"고 판단했다.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미-이란 전쟁 발발 후 한 달간 이날을 포함해 코스피가 4% 이상 떨어진 날이 6번에 달한다"면서 "잦은 급락에 지치고 포기하기보다는 1개월, 3개월 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한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http://mass.gov/CBHC)



# 사진으로 보는 2026년 3월 한인사회

## 공동체의 힘 보여 준 보스턴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



50주년 음악회 하이라이트인 찬양대·소규모 오케스트라 앙상블 연주를 마치고 기립박수를 받고 있는 모습. 보스턴 장로교회에서 30년을 시무한 후 은퇴한 전덕영 목사(오른쪽 위)와 장성철 목사

## 보스턴 새소망교회, 지역 노인 위한 <행복 시니어 학교> 출범



보스턴 새소망교회가 지역사회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만든 행복 시니어 학교에서 참가자들이 요가 체조와 특별활동을 하는 모습

## 보스턴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강원도민회 30주년을 맞아 공로패를 받은 이운노 전 회장, 고 이강원 전 회장(대리수상), 제노스코 고종성 대표와 보스턴 박형태 강원도민회장(사진 앞줄 왼쪽), 안병학 미주 강원도민회장(뒷줄)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PR. 3rd - APR. 9th, 2026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EASTER BRINGS JOY, PEACE, LOVE, AND SAVINGS!

Happy Easter from our family to yours! 풍성하고 특별한 부활절 만찬을 H 마트에서 준비하세요!

### KOREAN BEEF RICE SOUP (GUKBAP)

A broth that feels like a gentle tap on your shoulder, bringing comfort with every sip. Try making it at home with H Mart ingredients. 한 모금마다 전해지는 따뜻함, H 마트와 함께 국밥을 만들어보세요.



Jumbo Yellow Onion 양파 LB <b>\$0.49</b>	Cherimoya 체리모야 LB <b>\$7.99</b>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LB <b>\$0.99</b>	Frozen Durian 냉동 두리안 LB <b>\$2.99</b>	DRISCOLL Strawberry 드리스콜 딸기 2 LB/PKG <b>\$5.99</b>	Shine Muscat Grape 샤인 머스캇 포도 1.76 LB/PKG <b>\$12.99</b>	Garlic 마늘 5 CNT/PKG FOR <b>\$3.99</b>
Baby Bok Choy 베이비 박초이 LB <b>\$1.79</b>	Honey Mango 허니 망고 BOX <b>\$9.99</b>	Taiwan Spinach 대만 시금치 LB <b>\$1.99</b>	Hallabong Mandarin 한라봉 3 LB/BOX <b>\$9.99</b>	Gray Squash 그레이 호박 LB <b>\$0.99</b>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10 CNT/BOX <b>\$29.99</b>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LB <b>\$2.49</b>

SPEND \$60 AND MORE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Chuck Short Ribs 생소 척갈비찜 LB <b>\$15.99</b>	Fresh Beef Eye Round 생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b>\$8.99</b>
Fresh Pork Single Belly for BBQ 생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SLICED/LB <b>\$7.99</b>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b>\$3.99</b>
Fresh Whole Chicken 생통닭 LB <b>\$1.99</b>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b>\$16.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b>\$7.99</b>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b>\$8.99</b>
Frozen 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b>\$23.99</b>	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 <b>\$6.99</b>
Frozen 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산 곶등어 400-600 UP/LB <b>\$3.99</b>	Frozen Cleaned Cuttlefish 껍질 벗긴 갑오징어 LB <b>\$6.99</b>

### SMART CARD MEMBER ONLY

SAMYANG Buldak Artificial Spicy Chicken Flavor Ramen 삼양 로제 불닭볶음면 <b>\$6.99</b> (4.93 OZ X 5 EA/PKG)	SAMYANG Buldak Artificial Spicy Chicken Flavor Ramen 삼양 4가지 치즈 불닭볶음면 <b>\$6.99</b> (5.11 OZ X 5 EA/PKG)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b>\$10.99</b> (16.9 FL OZ X 6 EA/PKG)	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전복죽 <b>\$10.99</b> (14.8 OZ X 3 EA/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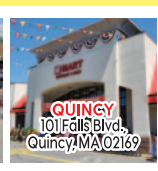
Q1 Allulose 1/10 Calories 큐원 알룰로스 1/10 칼로리 1.54 LB <b>\$7.99</b>	CHUNGJUNGONE Hongcho 100% Natural Fermented Vinegar 100% 과일숙성 발효초사용 홍초 POMEGRANATE 30.43 FL OZ <b>\$6.99</b>	CHUNG JUNGONE O'Food Original Seasoned Soybean Paste Mild Ssamjang 청정원 오푸드 순창 고소하고 담백한 쌈장 2.2 LB <b>\$5.99</b>	SEMPIO Soy Sauce 샘표 진간장S RICH & MELLOW 57.48 FL OZ <b>\$4.99</b>	K TOWN Creamy Rosé Dukboki 케이타운 그때 그맛 국물 떡볶이 크리미 로제 1.12 LB <b>\$4.99</b>
LEESUNGDANG Vegetable Rice Croquette 이성당 야채쌀 고로케 12.7 OZ <b>\$6.99</b>	YGSP Bungeoppang Fish Shaped Red Bean Bun 용의궁 용궁에서 온 대왕 붕어빵 2.64 LB <b>\$11.99</b>	HAIO Korean Style Cold Noodles Dongchimi Broth 해오름 동치미 물냉면 3.32 LB <b>\$4.99</b>	HAIO Pyongyang Style Cold Noodles 평양냉면 3.32 LB <b>\$4.99</b>	HAIO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소면 3 LB <b>\$3.99</b>
NONGSHIM Shrimp Flavored Cracker 농심 새우깡 14.1 OZ <b>\$5.99</b>	NONGSHIM Banana Kick Banana Snack 농심 바나나킥 6.34 OZ <b>\$5.99</b>	LG BABIENCE Little Kakao Friends Kid's High Moisturizing Lotion/Shampoo Body Wash LG 베이비앤스 리틀 카카오프렌즈 키즈 고보습 로션 /샴푸 바디워시 200 mL EA <b>\$3.99</b> (was \$4.99)	Ai Kekute Kitchen Hand Soap 아이 깨끗해 키친용 핸드솜 250 mL MINT EA <b>\$1.49</b>	Retro Deep Blue Line Dish 한국산 레트로 딥 블루 라인 찬기 5 X 1.2 INCH <b>\$3.99</b> (was \$6.99) / 6.3 X 1.5 INCH <b>\$5.49</b> (was \$8.99)

**TOBAGI**

ENJOY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b>이사 이제봉</b> DIRECTOR 781.654.5281 jeblee@bostonpremierrealty.com</p>	 <p><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p>	 <p><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p>	 <p><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p>	 <p><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sh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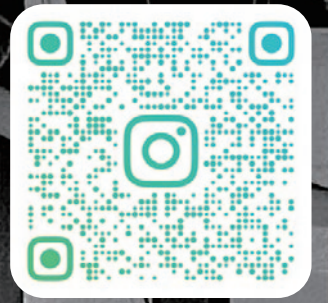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p><b>E.J. Kim</b>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p>	 <p><b>줄리 전</b>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p>	 <p><b>니키 박</b> 617.447.0591 nikkiepark@gmail.com</p>	 <p><b>피터 주</b> 617.780.7839 thepeterju@gmail.com</p>	 <p><b>지나 최</b> 978.866.3248 thepeterju@gmail.com</p>	 <p><b>이현주</b>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p>
 <p><b>사라 유</b>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p>	 <p><b>그레이스 정</b>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p>	 <p><b>황수진</b>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p>	 <p><b>마사 송</b>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p>	 <p><b>미키 최</b> 413.507.1402 mickichoi@gmail.com</p>	 <p><b>손창배</b>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p>
 <p><b>최진민</b> 617.877.0387 jchoi02@bostonpremierrealty.com</p>	 <p><b>이영순</b> 781.800.3412 bostony@bostonpremierrealty.com</p>	 <p><b>한혜숙</b>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p>	 <p><b>차민영</b>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p>	 <p><b>이준균</b>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p>	 <p><b>메건 리</b>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p>
 <p><b>Tammy Woolfolk</b>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p>	 <p><b>Nancy Wang</b> 617.230.9952 nancywang000@gmail.com</p>	 <p><b>Shirley Zhao</b>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p>	 <p><b>Vivian Yu</b> 617.935.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p>	 <p><b>Xian Dole</b> 413.522.8979 xiang2022@gmail.com</p>	 <p><b>Lu Jang</b> 240.449.0117 jangtubox@gmail.com</p>
 <p><b>John Tran</b>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p>	 <p><b>Rebecca Phu</b>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p>	 <p><b>Michael Somma</b>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p>	 <p><b>Linda Ta</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p>	 <p><b>Jun Wang</b>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p>	 <p><b>Lily Wang</b>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p>
 <p><b>Crystal Wei</b>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p>	 <p><b>빈센트 박</b>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p>	 <p><b>제이크 김</b>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p>	 <p><b>이상현</b>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p>	 <p><b>Mimi Belanger</b> 413.237.1586 mimyl111@hotmail.com</p>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mailto: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http://www.premierworkspro.com)

# 사진으로 보는 2026년 3월 한인사회

## 평통 보스턴협의회, 전승희, 박찬모 위원 의장 (대통령) 표창 수상



7일 보스턴컨벤션센터에서 김재휘 총영사(사진 왼쪽) 열린 평통 보스턴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평통의장(대통령)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어 박찬모 위원, 전승희 위원, 이강원 회장

## 시몬 천 박사 "시민 기반 한반도 주권 공동 체로 평화·통일 새 패러다임 모색"



7일 보스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통 강연회에서 시몬 천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 사은회 성료



3월 28일 보스턴장로교회에서 개최된 교사 사은회에서 우수 배우자상 수상자들이 상장과 쌀 한포대를 부상으로 받았다. 교사 사은회에서 각종 게임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는 교사와 가족들



## 한국정부, 보스턴서 인재 유치 나서... 연구·취업·창업 길 열어



3월 31일 개최된 과기정통부 주최 취업 및 채용 행사에서 창업지원토론회 패널들이 발표를 하고있다.(좌측). 행사 마지막에 열린 만찬 및 네트워킹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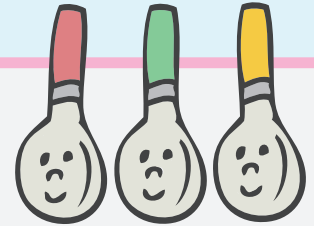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 OUR LOWEST PRICE!

APR. 2<sup>ND</sup> - APR. 9<sup>TH</sup>, 2026



LIMIT 2



**EASYSILI  
MINI LADLES 3P SET**  
이지실리  
미니국자 3P 세트  
(PASTEL/MONO)  
2 STANDARD+1 SLOTTED/SET

**\$9.99**

**SUNG GYUNG FOOD  
PREMIUM ROASTED  
SEAWEED VALUE PACK**

성경 녹차  
곰창돌김



**\$8.99**

LIMIT 2

27 PK/SET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K팝 새 역사 써 내려간 BTS... 빌보드 높아진 문턱도 '스ви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김선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5집 '아리랑'(ARIRANG)으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함께 달성하며 긴 공백기에도 견재를 과시했다.

2013년 서울 논현동의 작은 건물에서 출발한 방탄소년단의 일곱 멤버는 마치 소년 만화 주인공처럼 미국 '빌보드 200',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 미국 빌보드 '핫 100' 등 K팝 가수에게 높은 장벽 같던 글로벌 차트를 차례로 정복해갔다.

이들은 빌보드 차트 집계 규정이 지난 수년간 한국 가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여러 차례 수정됐음에도, 공고한 글로벌 '아미'(팬덤명)의 힘으로 그 문턱을 뛰어넘었다.

◇ 한국 가수 유일 빌보드 앨범·싱글 동시 1위... '핫 100'에 13곡 동시 진입

방탄소년단은 '아리랑'으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 1위에 이어 미국 '빌보드 200'과 '핫 100'에서도 통산 일곱 번째 1위를 각각 기록했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을 제외하고는 K팝 전체를 통틀어 '핫 100' 1위에 오른 사례는 방탄소년단과 멤버 지민·정국 외에는 없다.

방탄소년단은 또한 지난 2020년 미니앨범 '비'(BE)로 달성한 K팝 최초 '빌보드 200'·'핫 100' 동시 1위 기록을 6년 만에 재현해냈다. 같은 주에 두 차트 1위 기록은 팀 통산 2번째이며 한국 가수 중에선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아울러 이들은 1위 '스вим'(SWIM)을 비롯해 앨범 수록곡 14곡 중 국보 성덕대왕신종 소리만 담긴 'No.29'를 제외한 13곡을 '핫 100'에 진입시켰다. '꿈의 차트'로 불리는 빌보드 '핫 100'의 13%를 자신들 신곡으로 채운 셈이다.

방탄소년단은 특히 여러 차례의 빌보드 차트 규정 변경에도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빌보드는 지난 2022년 차트에 반영하는

주간 유효 다운로드 횟수를 인당 4건에서 1건으로 축소했고, 이듬해인 2023년에는 팬들이 많이 이용하던 D2C(Direct-to-consumer·소비자 직접 판매, 이른바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의 디지털 싱글 판매량을 차트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빌보드와 유튜브 사이의 갈등으로 유튜브 데이터가 13년 만에 빌보드 '핫 100'과 '빌보드 200'의 차트 집계 대상에서 빠졌다. 충성도 높은 팬들을 갖춰 수익~수십억 건에 달하는 뮤직비디오 조회 수를 자랑하는 K팝으로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화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군 복무에 따른 오랜 공백기와 불리한 환경 변화를 딛고 보란 듯이 차트 1위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규탁 조지메이슨대 한국캠퍼스 국제학과 교수는 31일 "방탄소년단은 이제 그 자체 가이미 '하나의 장르'가 됐다"며 "넷플릭스가 이들의 컴백쇼를 생중계해 많은 글로벌 시청자가 지켜본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방탄소년단은 현재의 글로벌 팝 음악을 대표하는 뮤지션"이라고 말했다.

◇ 기록 또 신기록... BTS 13년 활동사가 K팝 새 역사

2013년 중소기획사 소속 '휴수저 아이돌'로 출발한 방탄소년단이 지난 13년간 걸어 온 길은 그 자체가 곧 K팝의 새 역사였다.

일곱 멤버는 신곡 '20'에서 '그래 방탄처럼 그제 말은 쉽 / 우린 뽀빠 누가 맨날 뛰 어넘니'라고 노래하던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한국대중음악 사상 첫 '빌보드 200' 정상에 밟은 이래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2018년),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2019년),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2020년), '비'(2020년), '프루프'(Proof·2022년)에 이

어 이번 '아리랑'까지 총 일곱 차례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20년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K팝 최초로 '핫 100' 1위를 달성했고, '새비지 러브'(Savage Love·2020년),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2020년), '버터'(Butter·2021년),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2021년),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2021년)에 이어 '스вим'까지 일곱 차례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라이프 고스 온'은 한국어 가사가 주를 이루는 노래로는 지금까지 유일한 '핫 100' 1위곡이며, '버터'는 이 차트에서 10주 1위라는 진기록도 남겼다.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도 방탄소년단은 '아리랑'을 포함해 세 차례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팝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멤버들의 '상복'도 이어졌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6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수상했고, 2021년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올해의 아티스트)를 K팝 최초로 품에 안았다.

또한 수상에 이르지 못하는 대중음악 최고 권위를 지닌 '그래미 어워즈'에서 3년 연속으로 후보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이 밖에도 최연소 화관문 화훈장 수훈(2018년), 유엔 본부 연설(2018년), 영국 웹블리 스타디움 단독 콘서트(2019년), 백악관 방문(2022년) 등 무대 안팎의 행보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위버스 커뮤니티 가입자만 3천410만명... 전 세계 '아미' 결속력 굳건

방탄소년단의 '기록 행진' 비결로는 무엇보다 일곱 멤버의 든든한 지원자인 전 세계 '아미'가 꼽힌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팬덤의 큰 규모와 끈끈한 결속력은 400만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

는 물론 빌보드 '핫 100' 차트에 반영되는 스트리밍·다운로드 실적 호조로도 이어졌다.

이는 K팝 가수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라디오 에어플레이 점수의 상대적 약세에도 방탄소년단이 엘라 랭글리나 올리비아 디안 같은 스타를 제치고 '핫 100' 1위를 밟는 데 기여했다.

글로벌 '아미'의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K팝 가수는 물론 전 세계 가수를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규모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소속사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 플랫폼 위버스의 방탄소년단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3천410만명에 달하고,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훨씬 웃도는 8천만명에 육박한다.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2회 규모로 펼치는 K팝 사상 최대 규모의 스타디움급 월드투어가 매진 사례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팬덤 규모를 가늠케 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아미'가 3년 9개월에 달하는 팀의 긴 공백기 동안 결속력이 유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방탄소년단 팬덤은 다른 K팝 그룹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방탄소년단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이 많다"며 "멤버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도 한눈을 팔지 않다가, 팀이 복귀하면 다시 방탄소년단 음악을 찾아 듣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를 통해 힘든 순간을 극복하고 삶의 지표가 바뀌는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소비자의 차원을 넘어선 일종의 '가치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긴 공백기에도 팬들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 국제결혼가정선교회, 2026년 연례 모금 만찬 파티



##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April 25, 2026 (Saturday) 6 PM

Chelmsford-Lowell Elks Lodge  
300 Littleton Road, Chelmsford, MA 01824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BOSTON CHAPTER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www.naicfm.org

2026년 이민생활을 담당하게 다들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민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이혜준(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junhey2026@gmail.com

# [인류연재] 라마단과 축구

Ifar : 이슬람교도의 단식 월인 라마단 기간 중 해가 진 이후에 하루의 단식을 마무리하며 먹는 저녁  
- 네이버 영어 사전

저녁 6시 52분. 아랍어로 된 기도와 이름 모를 현악기의 음률이 눈에 띄지 않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다. 그 소리는 남편 직장 동료인 나다의 집안을 빈틈없이 구석구석 싸고돈다. 몇 주 전 일찍이 나다에게 초대장을 받은 친구, 동료와 이웃이 지금 이 집 부엌과 거실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 그들 곁으로 나다의 남편이 천천히 걸어지나 간다. 그는 양손에 각각 대접과 쟁반을 받쳐 들고 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수북이 담긴 야자 대추와 열 맞춰 놓인 플라스틱 물 잔을 골라 두 손에 하나씩 쥘다. 어디선가 우릴 둘러보고 있었을 나다가 거실 티브이 앞으로 나와 홀로 선다. 그 순간 말소리와 음악이 멈추고 단 한 번의 종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진다. 담배 연기처럼 점점 사라져 가는 종소리를

배경으로 나다가 손님들에게 먹고 마시기를 다소곳이 권한다. 야자 대추에서는 꽃감맛이 난다. 식탁 위에 뷔페식으로 차려진 가지각색의 요리를 숨으로 먼저 음미한다. . 콧속을 할퀴는 듯한 매운 향신료 기운에 입맛이 돋는다.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빛깔의 음식도 목격한다. 그러나 이 저녁 식사가 내게 오늘 첫끼라 접시 한가득 욕심을 부려본다. ‘이런 식으로 금식과 식사를 빛과 어둠에 맞추어 한 달을 살아내는 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연분홍 빛꽃 빛 히잡을 두른 나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앗, 짜이다, 두바이 초콜릿이다.” 나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애처럼 아는 이름만 겨우 외쳐볼 뿐이었다. 나다는 내가 현관 벽에 걸린 액자 속 아랍어를 유심히 들여다볼 때 내 등 뒤에 서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라마단에 대해, 이슬람 문화에 관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생각나는 대로 막 떠

들다 나다에게 저지를 무례가 걱정된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짜이와 두바이 초콜릿 뒤를 이을 대화의 주인공으로는 아직 어려 히잡을 두르지 않은 이 집 딸이 안전하겠지. “저기네 딸 운동 뭐 해?” “안해.” “축구시켜, 축구. 동네 축구 4월 초에 시작해. 등록 기간 아직 안 끝났을 걸.” “아, 진짜 등록해 볼까?” “애가 승부욕은 좀 있어?” 애들 동네 축구로 가능할 일시적인 세계 평화를 마음속에 그리며 위아더 월드, 힐 더 월드. “나, 동네 축구 협회 집행부야. 등록 링크 보내줄게.” 남편 목소리가 우리 사이를 가로지른다. 하지만 나다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아, 어쩐지 네 남편 학교에서 무슨 발표할 때 축구 규칙을 예로 들면서 막 열정적으로 설명하더라.” 나다의 말끝마다 웃음이 번진다. 서서히 온 집안을 뛰어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우리의 말문을 가로막는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 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정지훈 "첫 빌런 연기, 역할 몰입하다 집에서 혼쫓 났죠"

(서울=연합뉴스) 고기혜 기자 = "사실 빌런(악인) 역할을 한다는 게 제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늘 선하고 해피한 역할을 주로 맡아왔기에 언젠가 한번은 사악한 역할을 꼭 해보고 싶었죠."

가수 겸 배우 정지훈은 31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판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냥개들' 제작발표회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주연급 빌런 역할에 도전하는 데 따른 부담감을 털어냈다.

'사냥개들' 시리즈는 불법 사채 세계에 맞서는 두 청년 복서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물이다. 2023년 시즌1 공개 후 3년 만에 돌아온 시즌2에서는 글로벌 불법 복싱 리그를 상대로 더 강해진 청년 복서 듀오 김건우(우도환 분)와 홍우진(이상이)의 모습이 그려진다.

새 시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지훈의 합류다. 정지훈은 글로벌 불법 복싱 리그를 운영하는 새로운 빌런 백정을 연기한다. 정지훈은 "평소 '사냥개들'을 연

출하신 김주환 감독님의 팬이었다. 시즌1도 우연히 틀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8편을 정주행할 정도였다"며 "제가 시즌2에 함께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감독님이 라면 먹고 따라가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지훈은 극 중 건우와 우진보다 압도적으로 센 빌런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했다.

그는 "감독님께서 '웃는데 무서워야 하고, 매 동작이 두 주인공을 비참하게 만들어야 한다. 몸도 너무 좋으면 안 된다'는 등 엄청난 주문을 받았다"며 "기존 액션 스타일의 몸동작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복싱도 많이 공부하고 연습했다"고 돌아봤다.

정지훈은 "1년 동안 완전히 백정 캐릭터로 살았다"며 "평생을 악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여야 하다 보니, 집에서 한 번 눈빛이나 제스처를 그렇게 했다가 정말 혼쫓이 났다. 솔직히 가족들은 이 작품을 보지 못할 것 같다. 추천은 못할 것 같다"고 웃음 지었다.

"시청자들에게 제 캐릭터를 설득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두 주인공을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요. 둘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절망을 줄 수 있어야 시청자도 저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에 맞서는 두 주인공 건우와 우진 역시 3년의 세월만큼 한층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우도환은 "시즌1 때보다 5kg을 증량해 현재 체중보다 13kg이 더 나가는 상태로 촬영했다"며 "3년 동안 육체적, 내면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외형과 액션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이는 "건우를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겠다는 책임감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며 "왼손 복서로서 파워보다는 심리전과 타이밍을 이용한 카운터 펀치를 선보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배우들과 감독은 시즌1을 뛰어넘는 리얼한 액션과 더 깊어진 두 주인공의 '브로맨스'를 관전 포인



트로 꼽았다.

우도환은 "많이들 브로맨스라고 해주는데 저희는 '브로멜로'라고 생각한다"며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두 사람이 더 깊어진 우정으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고 했다.

연출을 맡은 김주환 감독은 "시즌1에서 사랑받았던 신선한 복싱

액션과 브로맨스라는 '아는 맛'을 어떻게 더 진하고 멋있게 보여드릴까 깊이 고민했다"며 "건우와 백정이 맞붙는 5부 격돌 신에서는 순간 현장의 모든 스테프가 숨을 죽였다"고 떠올렸다.

'사냥개들' 시즌2는 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gahye\_k@yna.co.kr

4월 5일 - 4월 11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시원하게</b></p> <p>● 운수: 운이 상승세를 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시원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 금전: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결과와 이익이 따릅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애정: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7, 9일 길일. 5, 11일 주의.</p>	<p><b>소띠   빈 잔이 되어야 다시 채울 수 있듯이</b></p> <p>● 운수: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이 멈춰져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기회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손해를 끼칠만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으니 잘 모르는 사람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빈 잔이 되어야 다시 채울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깨끗이 정리해두어야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5, 8일 길일. 6, 10일 주의.</p>	<p><b>범띠   적합한 때를 만났으니</b></p> <p>● 운수: 시작하기 전에는 꿈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면 하게 됩니다. ● 금전: 적합한 때를 만났으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매매나 계약이 손조롭게 이루어집니다. ● 애정: 편하게 애기를 할 곳이 필요하던 차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보따리가 펼쳐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6, 11일 길일. 7, 10일 주의.</p>
<p><b>토끼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b></p> <p>● 운수: 이동이나 변화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매상에 오릅니다. 영업장소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뿔뿔하게 자리를 채우니 신이 나서 일하게 됩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미처 신경 써주지 못했던 것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빔을 덜어낸 것처럼 활기차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6, 7일 길일. 5, 8일 주의.</p>	<p><b>용띠   한 번 더 생각해보고</b></p> <p>● 운수: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내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 금전: 다낭 비입니다. 몇 번 쓰지도 않을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들여야 합니다. ● 애정: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것보다 연인 사이에서 친구 사이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더 힘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5, 8일 길일. 6, 9일 주의.</p>	<p><b>뱀띠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가는</b></p> <p>● 운수: 성공이란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생길 것입니다. ● 금전: 과거에 뿌렸던 씨앗이 어느덧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수확할 일만 남았습니다. ● 애정: 소개를 받는 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말고 만나세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5, 9일 길일. 7, 10일 주의.</p>
<p><b>말띠   미래에 집중해야</b></p> <p>● 운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 금전: 당장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지 마세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집중해야 훗날에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 애정: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쌓아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병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p><b>양띠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b></p> <p>● 운수: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정하기 어려우니 잠시 보류하도록 하세요. ● 금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구멍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다 손해를 봅니다. ● 애정: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갈등만 커집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7, 11일 길일. 6, 9일 주의.</p>	<p><b>원숭이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b></p> <p>● 운수: 더디게 가는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차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쉽지만 어떤 이에게는 어렵지만 한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인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당장은 편치 않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길게 보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 애정: 너무 바빠서 함께 모여 식사하기가 어려웠던 가족이 모처럼 모입니다. 기분 좋은 대화도 오고 갑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5, 8일 길일. 7, 10일 주의.</p>
<p><b>닭띠   가면 갈수록 통한다는 느낌이</b></p> <p>● 운수: 사소한 것 같은 말투 하나에도 정감이 있으면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해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전: 큰돈을 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처음에는 잘 어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5, 9일 길일. 8, 11일 주의.</p>	<p><b>개띠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고</b></p> <p>● 운수: 구태여 사서 고생을 하는 힘든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평탄하고 쉬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 금전: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더 욕심내면 이미 가진 것도 잃게 되기 쉽습니다. ● 애정: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써주세요. 틈틈이 애정 표현도 해야 하겠습니다. 04, 82, 70, 58, 46, 34년생은 6, 11일 길일. 8, 9일 주의.</p>	<p><b>돼지띠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b></p> <p>● 운수: 알찬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합니다. 보기 좋은 곳으로 손이 먼저 가기 마련이니 신경 써야겠습니다. ● 금전: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애쓴 것에 관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인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함께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1일 길일. 6, 10일 주의.</p>

# 오스카 수상 '케데헌' 주역들 "속편도 한국적인 것, 트로트도 담고파"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속편 이야기 못 풀어드릴 것 같아요.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다만 다음 작품도 첫 영화처럼 크리스 감독님과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 거예요. 기대하세요."(매기 강 감독)

미국 골든 글로브와 그래미,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을 휩쓸며 수상 레이스를 마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주역들이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한국을 찾았다.

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기 강 감독은 제작이 확정된 '케데헌 2'의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트로트, 헤비메탈 등의 장르를 속편에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1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이벤트가 많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케데헌'은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세 멤버 루미, 미라, 조이가 세계를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악령 사냥꾼 헌트릭스가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는 악령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에 맞서는 모습이 펼쳐진다.

'케데헌'은 지난해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제68회 그래미 어워드 OST상까지 주요 시상식을 휩쓸었고, 지난달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차지했다.

'케데헌'으로 첫 내한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 연출자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은 속편도 핵심은 '한국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펠한스 감독은 "속편에서도 '한국적인 것'이 영화의 영혼이 될 것"이라며 "한국 문화에 강력한 기반을 두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펠한스의 아내는 한국인 화가이자 유명 작가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살고, 아내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통을 감내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놀라운 모습이었다.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헌트릭스의 리더 루미의 서사에 한국인 특유의 강인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펠한스 감독은 "한국인은 많은 일을 겪으면서 강인해지고, 그에 대한 힘과 자부심이 있다고 느꼈다"며 "이런 모습을 루미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 즐거웠다"고 돌아봤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도 '케데헌' 성공의 가장 큰 의미를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것에서 찾았다.

그는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영화를 한국에 주고 싶었다"며 "그런 영화가 저에게도 필요했고, 한국 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교포가 '은전한 한국인'이 아

닌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며 "저 같은 사람들(교포)도 한국 문화의 일부이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될 한국인인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헌트릭스의 루미 파트를 노래한 한국계 미국인 가수 겸 작곡가 이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선보인 '골든' 무대를 떠올리며 다시 감격에 젖었다.

이재는 "무대 리허설 때 정말 많이 울었다"며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이들과 우리나라의 국악, 판소리를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떠올렸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골든' 공연에는 사물놀이 악사와 저승사자처럼 갖을 쓴 무용수 등 24명이 함께 무대에 올랐고,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에마 스톤 등 할리우드 배우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공연을 즐겼다.

이재는 "디캐프리오가 응원봉을 들 줄이

야' 하며 정말 놀랐고 '역시 K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든' 가사 속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이라는 가사가 너무 와닿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더블랙레이블 소속 작곡가 곽중규·이유한·남희동(이상 IDO)은 간담회에 참석해 시상식에서 못다 한 수상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 당시 이유한이 마이크를 건네받고 소감을 말하는 순간 마무리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말을 마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유한은 "당시 저희 모두의 가족과 더블레이블, 프로듀서 등 멤버들 모두 수고했고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며 "이야기를 못 해서 아쉬움도 남지만 영광스럽고 즐거운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one@yna.co.kr

## 고윤정부터 지성·김희애까지... '모자무싸'·'골드디거' 기대작

(서울=연합뉴스) 조윤희 기자 = JTBC가 판타지부터 멜로 사극, 미스터리 로맨스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아우르는 올해 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했다.

30일 JTBC에 따르면 상반기 기대작은 '나의 해방일지' 박해영 작가의 신작인 토일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이하 '모자무싸')다.

다음 달 18일 첫방송 되는 '모자무싸'는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잘 풀리지 않아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하는 인물이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다. 배우 구교환과 고윤정이 주연으로 출연하며 '웰컴투 삼달리'의 차영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재벌집 막내아들' 산경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신입사원 강희장'도 눈길을 끈다.

사업의 신으로 불리는 대기업 회장이 사고로 원치 않는 2회 차 인생을 살게 되는 드라마다. 이준영과 손현주등이 출연하며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강렬한 서사를 선보인다.

배우 지성이 주연을 맡은 '아

파트'는 아파트를 둘러싼 눈먼 돈을 접수하려는 전직 조폭이 주민들과 함께 버리를 파헤쳐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성과 함께 하윤경, 박병은, 문소리가 호흡을 맞춘다.

글로벌 요리 서바이벌을 배경으로 한 '파이널 테이블'은 드라마와 예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다. 안효섭과 흥화연이 주연을 맡아 전 세계에서 모인 한국인 셰프들의 화려한 요리와 다양한 사연을 담아낼 예정이다.

영국 BBC 동명 드라마를 원

작으로 한 '골드디거'는 김희애와 노상현이 출연을 확정 지었다. 성공한 중년 여성과 젊은 남자의 사랑과 의심을 그린 미스터리 로맨스로 '부부의 세계' 주역 김희애가 밀도 높은 심리전을 펼칠 예정이다.

연말을 장식할 사극 '신의 구슬'은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호국의 성물을 찾아 전쟁터로 뛰어든 이들의 투쟁을 그린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정대운 감독과 '녹두꽃'의 정현민 작가가 합류했으며, 안보현과 이성민 등이 캐스팅됐다.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1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 원준상 선교사 뉴욕.뉴저지에 현장 치유와 '돌파기도회' 문을 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막 9:29)

말씀은 인간의 능력이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악한 귀신, 혹은 극심한 고난( '이런 유' )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도(믿음)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 내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며 하신 말씀이다. '이런 유'의 의미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악한 시험, 질병, 영적 침체, 인간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

원준상 선교사와 이 사무엘 선교사의 '말씀치유, 신유 회복 성회'의 주제로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3주동안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까지 바쁜 일정으로 많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갔다. 선교 초대교회 설립자, 조지워싱턴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으며 브라질에서 많은 사역과 한국을 오가며 계속 치유사역을 하고 있다. 이번 뉴욕과 뉴저지 집회에서의 놀라운 기적과 병고침의 사역은 현장에서 보는 나로서도 신기함마저

들었다. 정말 이런 치유의 현상이 있긴 있구나 싶었다.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누군가 이 사역을 하면 이단, 삼단을 찾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였다.

이번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원준상 선교사, 강력한 치유 대성회를 주관한 한미두나미스예수장로회(최영식 목사), 뉴욕뉴저지노회(노회장 김희복 목사), 주최는 두나미스 신학대학교(총장 최영식 박사, 학장 김희복 목사, 이사장 최윤경 목사, 신 영 목사, 교목 우정하 목사, 송영희 목사), 후원은 두나미스 총동문회(회장 문종희 목사), 준비위원장(이도열 목사), 찬양인도(이광선 찬양사역자)으로 원준상 선교사를 모시게 되었다. 6년 전 초빙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다가 팬데믹을 맞아 이루지 못하고 2026년 3월에 뉴욕에 다시 초빙하게 되었다.

3월 9일 첫번째 집회는 <하크네시아교회/전광성 목사 시무>에서 있었다. 작은 공간에서 3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있었다. 여섯.일곱 정도 분들은 자리가 부족해 참석하지 못하고 아쉬움으로 돌아갔었다는 뒷이야기를 들었다. 이처럼 불치병의 환자들

이 현장 치유되는 것에 놀라고 신기한 기적의 현장은 정말 처음 보았다. 절뚝거리며 들어왔던 어느 성도는 놀랍게도 치유 후 걷고 뛰는 것이 아닌가. 그 현장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의심 많은 나는 믿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현장에는 바로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것이다. 이번 원준상 선교사의 집회 기간 중에는 무엇보다도 1시간 여 동안 말씀이 우선되는 집회 현상이었다. 적당히 치유집회라는 이름으로 뉴욕에 어느 목사가, 어느 선교사가 왔다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치유와 기적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집회였다. 말씀과 치유가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레일로드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번 치유집회에서 만난 나의 간증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눅 24:48-49)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는 단순하다. “증인이 되어라” ,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증거이다. 그리고 사명은 열심이 아니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증인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원준상 선교사와 이 사무엘(Samuel Lee) 선교사 초청 뉴욕.뉴저지 집회는 한미두나미스예수장로회(총회장 최영식 목사), 뉴욕뉴저지노회(노회장 김희복 목사), 라마나웃 기도원(조연순 사모), 뉴욕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 메릴랜드 초대교회(김하나 목사), 두나미스 증경회장(이도열 목사), 뉴저지 베데스 기도원(최현숙 목사), 두나미스 총동문회장(문종희 목사), 뉴욕주찬양교회(배영숙 목사), 맨하탄선포외침전도(송영희 목사), 찬양인도(이광선 찬양사역자), 한국에서 오신 원 선교사님 제자(강만수 목사) 모두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7시간의 첫번째 '돌파기도회' 가 뉴욕 주찬양교회(배영숙 목사)에서 시작됐다. 할렐루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40) 불안하고 두려운 주식시장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우려로 유가가 급등락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몇 주 연속 흔들리면서 많은 투자자가 불안해하고 있다. 지수가 고점 대비 10% 가까이 빠지는 '조정(Correction)' 국면에 진입하자,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은퇴 자금이 줄어드는 화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투자의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부를 쌓은 사람들은 시장의 공포에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주식시장이 언제나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10% 이상의 조정은 1~2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시 말해, 조정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호흡이다.

1987년 블랙 먼데이를 떠올려 보자.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약 22% 폭락했다. 당시에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장은 결국 회복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급락, 그리고 최근의 지정학적 충격과 인플레이션 위기까지,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은 다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다.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이 사실은 최근 수치만 보아도 분명하다. 2020년 이후 지난 6년 중 5년은 S&P 500이 상승 마감했다. 2009년 이후로 보면 지난 17년 중 무려 15년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전체를 보더라도 상승한 해와 하락한 해의 비율은 20대 6에 가깝다. 이는 지난 100년 동안 시장이 평균적으로 4년 중 3년은 상승했다는 장기 통계와도 거의 일치한다.

결국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장은 올라간다. 때로는 하락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정상이고 하락은 과정일 뿐이다. 실제로 200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S&P 500의 누적 총수익률은 623% 이상에 달한다. 다

시 말해 10만 달러를 장기 투자했다면,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 약 72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지금처럼 불안이 커지는 시기에도 기업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향후 12개월 이익 전망(EPS)은 오히려 3.6% 상승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 타이밍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가장 큰 반등은 대개 가장 큰 공포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는 이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수익은 전쟁, 경기침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같은 불확실성을 참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가다. 어떤 전문가든 이것을 주식시장의 입장료(price of admission)라고 표현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미래의 시장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락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락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장은 언제나 요동친다. 앤 밀레티(Allspring Global) 투자 전략가는 “조정은 과도한 낙관론을 식히고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정화 작용” 이라고 말한다.

폭풍우 속에서 배를 버리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결국 목적지에 닿는 사람은, 흔들려도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부를 쌓는 사람은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과 인간의 혁신을 믿는 것이다. 낙관은 감정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한 투자 원칙이다.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2026 CIVIC ENGAGEMENT & LEADERSHIP SUMMER SCHOLARSHIP

Open to High School & College  
Students of Korean Heritage

Empowering Korean-American students  
through civic engagement, leadership  
development, and mentorship



List of open statewide internships ✓

Mentorships ✓

Networking & engagement opportunities ✓

**APPLY NOW**



APPLICATION DEADLINE  
**APRIL 24, 2026**



**SCAN HERE**

SUPPORT KACL-NE BY  
FOLLOWING US ON  
ALL PLATFORMS



**2025 Scholars**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삶" '자기 혈관 숫자' 부터 챙겨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혈관 건강에 대해서 휴람 의료 네트워크 H+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 규영 전문 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에너지보다 이를 뒷받침할 '혈관 건강'이라는 기초 체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엔진을 가진 차라도 연료가 흐르는 관이 막히면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6명은 이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이거나 전(前)단계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40대의 경우 자신의

혈관 상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잦은 야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MZ세대의 혈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다.

실제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30대 초반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까지 발생해 에크모(ECMO) 시술과 심장혈관 스탠트 삽입술 후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사례가 있었다. 발병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흡연,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방치해온 고콜레스테롤혈증이었다. 이는 심뇌혈관질환이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젊을 때부터 자신의 혈관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혈관 건강의 관리는 정확한 '수치 확인'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혈관이 안전한지 가장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자기 혈관 숫자'라고 부른다. 바로 △혈압 120/80mmHg 미만 △공복혈당 100mg/dL미만 △총콜레스테롤 200mg/dL미만이 기준이다. 자신의 수치가

## 2026 병오년, MZ 혈관 숫자 체크

• 심뇌혈관질환 예방, 2030도 예외 없는 혈관 건강 관리  
• 증상 없이 진행되는 '조용한 혈관 손상', 숫자로 확인하세요

혈압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b>120/80</b>	<b>100</b>	<b>200</b>

자료제공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120/80 · 100 · 200'이라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 기억하고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젊을수록 '나는 괜찮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혈관이 건강한 것은 아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 혈관 손상이 누적돼 어느 순간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 혈관 숫자'를 통해 자신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마주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적정 체중 유지와 함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미 진단받은 만성질환은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또한 응급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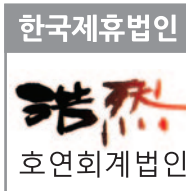
,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지금 바로 자신의 혈관 숫자를 확인해보길 권한다.

"건강한 삶 '자기 혈관 숫자' 부터 챙겨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 Meet Me at

# the MFA ▶ Spring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 Special Exhibition

## Rosângela Rennó and Histories of Memory and Migration in Brazil

▶ On view 4/4–8/2



### Special Event

## \$5 Third Thursdays

- ▶ Thursday 4/16
- ▶ \$5 admission after 5 pm

### Kids and Family

## April Vacation Week

- ▶ 4/22–4/25
- ▶ Drop-in art making



#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Rosângela Rennó, Operação A3-2/Operation A3-2 (detail), 2014. Three inkjet prints, silk paper, Plexiglas, bolts and old lenses. Courtesy of the Artist. © Rosângela Rennó. Tim Correia Photography.

▶ Plan your visit at [mfa.org](http://mfa.org)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MA 최고의 공립학교 Massachusetts Academy of Math & Science at WPI (Mass Academy/Mams, Worcester, MA) 1편

Min Oh  
www.anytimeofficehours.com 코디네이터  
시험 대비: ISEE, SSAT, SAT, ACT 맞춤형 전략 지도  
STEM 특화: 과학경진대회 및 리서치 프로젝트 멘토링  
인문 교양: 영어 글쓰기 대회 준비 및 논리적 에세이 지도  
진학 준비: 대입 에세이 및 차별화된 학업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매쓰아카데미는 11학년과 12학년만을 위한 2년제 공립 마그넷 고등학교로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WPI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MA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되, 다른 주로 이사할 경우엔 다닐 수 없게 됩니다. 학년당 정원은 약 50명뿐이며, 교사 1인당 학생의 수가 약 15명 내외인 소규모 밀착 클래스입니다.

이곳은 2년간의 과정을 두 개의 다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1학년은 아카데미 과정으로 학생들은 고난이도 프로젝트 기반 커리큘럼을 이수합니다. 수업 과목으로는 수학 모델링, 물리학, 인문학, 컴퓨터 과학, 과학기술 글쓰기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독립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를 학교 전체 과학 박람회 에서 발표하는데, 이 프로젝트들

은 국제 대회 진출로 종종 이어질 정도의 수준입니다.

12학년은 WPI대의 풀타임 학생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20대 대학생들과 캠퍼스 생활을 하고 동일한 학습량을 소화하여 WPI 대학 학점을 취득하는데 이 학점은 타대학에 진학 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일정은 WPI의 쿼터제이며 졸업 요건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12학년을 마치면 고등학교 졸업장과 함께 WPI대학교 공식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아카데미 졸업 후 WPI대학교로 진학할 경우, 이미 1년치 학점을 이수한 상태로 입학하게 되기 때문에 졸업을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치 대학 등록금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어서 탑 스쿨을 갈 수 있음에도 WPI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 남은 3년도 2년만에 졸업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 WPI로 진학할 경

우, 대개의 매쓰아카데미 졸업생들은 특별 장학금 혜택이 주어져서 경제적 이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시간적 주요인으로 WPI 진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HARVARD, MIT, PRINCETON, CARNEGIE MELLON, COLUMBIA, CORNELL, BROWN, UPENN, STANFORD, GEORGIA TECH, CALTECH 등 그야말로 탑 스쿨 들로 진학합니다.

최근 성과 지표만 보더라도 2024년 졸업생의 64%가 내셔널 메리트 장학 프로그램에서 준결승 우승자 또는 우수 추천 학생으로 선정되었고, WPI대학교 수업을 듣는 12학년 학생들의 평균 GPA는 3.94라는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단 순히 대학 수업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실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쓰아카데미는 학교의 학업 수준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보다는 협업이 학교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는 로봇틱스팀, 사이버패트리엇, 수학팀, 프로그래밍팀 등이 있고, 학생들은 WPI내의 음악 앙상블(합주단)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 관하여서는 많은 학생들이 MIAA (매사추세츠고교체육 협회) 규정에 따라, 본래 거주

지역의 고등학교(원래 소속 학교) 스포츠 팀 선수로 뛰거나 클럽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12학년 학생들은 외국어 습득, 목공, 또는 응급구조 훈련 (EM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100시간을 투자하는 독립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합니다.

다음편에는 매쓰아카데미의 특별 프로그램 및 경연 대회, 입학 관련 주요 정보 등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 신문을 독자여러분 손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의 생활, 보스톤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구독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 뉴스레터 구독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매주 2회, 최신 뉴스와 주요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 및 신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데스크탑(PC)에서 신청할 때

1. 보스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뉴스레터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신청할 때

1. 모바일 브라우저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2.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스크롤합니다.
3. 보스톤코리아 로고 아래 메뉴 중 <뉴스레터 구독> 배너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4.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 참고하세요!!!

만약 신청 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시거나  
bostonkorea.com 도메인을 안전한 발신자로 등록해 주세요.



# 올스텐 스테이지 가라오케

##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THE ULTIMATE  
KARAOKE  
EXPERIENCE**



### MAIN STAGE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OPEN HOURS:**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지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과 치킨 윙 등 음식 서비스



### PRIVATE STUDIOS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http://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